

보도시점 2026. 10. 8.(목) 08:00 배포 2026. 10. 8.(목) 08:00

대한민국,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순위 1개 상승' 12위 기록

- 2025년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발표 결과, '환경 조성',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인프라 및 서비스', '관광 자원', '관광의 지속 가능성' 5대 평가 분야에서 모두 순위 상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황교익)은 2025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관광발전지수 발표 결과, 대한민국의 종합 순위가 110개 평가 대상 국가 중 1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관광발전지수에서 13위를 기록한 것보다 순위 1개가 상승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2007년부터 격년으로 국가별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요인을 측정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에는 기존의 평가 체계에서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해 관광발전지수(TTDI, The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로 개편했다. 올해 발표한 관광발전지수 보고서는 원자료 및 기준값 조정에 따라 재산출한 과거 지수를 기반으로 하였음을 밝혔다*.

* 2023년 우리나라 관광발전지수 종합 순위 14위 → 13위로 조정(분야별 세부 순위도 조정됨)

5대 평가 분야에서 모두 순위 상승, '관광의 지속 가능성'은 20위에서 13위로 순위 7개 상승

관광발전지수는 5대 분야 및 17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우리나라는 2023년 대비 5대 분야 모두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환경, 고용, 지역사회 기여, 관광 수요 등과 관련한 '관광의 지속 가능성(20위 → 13위)' 분야의 순위가 가장 크게 올랐다. 관광지 방문의 주요 이유가 되는 자연·문화 자원 및 기업 출장·교육관광 등의 자원이 포함된 '관광 자원(14위)'은 '23년 대비 순위가 2개 상승했다. 관광사업 운영 및 투자 여건을 포착하는 '환경 조성(18위)', 정부의 예산 중 관광 지출 비중, 관광통계의 포괄성 및 적시성과 항공·여권 경쟁력, 가격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47위)',

물리적 기반 시설과 관광 서비스의 가용성 및 품질을 측정하는 ‘인프라 및 서비스(25위)’도 각각 순위 1개씩 상승했다.

<2025년 기준 관광발전지수 분야 및 부문별 순위 변화(2023년 대비)>

분야 (5)	환경 조성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인프라 및 서비스	관광 자원	관광의 지속가능성
	18위(1↑)	47위(1↑)	25위(1↑)	14위(2↑)	13위(7↑)
부문 (17)	기업 환경	관광정책의 우선순위	항공 운송 인프라	자연 자원	환경 지속가능성
	안전 및 보안				
	보건 및 위생	관광개방성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	문화 자원	관광의 사회경제적 영향
	인적자원 및 노동시장				
	정보통신기술 (ICT) 준비수준	가격경쟁력	관광객 서비스 및 인프라	비레저 자원	관광 수요 지속가능성

17개 부문별 분석으로는, 2023년 대비 10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준비 수준(1위)’, ‘육상·항만 운송 인프라(9위)’, ‘문화 자원(10위)’, ‘비레저 자원(9위)’ 등 4개 부문에서 상위 10위권을 기록했다.

102개 지표 기준, 우리나라가 10위권에 진입한 지표는 총 27개로 나타났다. 그 중, ‘환경 조성’ 분야에 속한 4개 지표(▲조직적 폭력, ▲기본 위생시설 이용률, ▲기본 식수 이용률, ▲병상 밀도),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속한 1개 지표(▲에너지 효율 규제),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에 속한 1개 지표(▲통계 제공 적시성) 등 6개 지표에서 1위에 올랐다. 특히 ‘환경 조성’ 분야의 지표에서 강점을 보이면서, 관광산업을 뒷받침하는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가장 크게 개선된 지표는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의 ▲해외 관광객 입국 계절성(33위 → 4위)으로 나타나, 방한 수요의 안정성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분야의 10위권 이내 지표는 12개 중 2개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월별·분기별 관광통계 제공 적시성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국가별 여행 자유도와 국제적 신뢰도를 반영하는 ‘여권 파워(2위)’도 강력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해당 분야 내 ‘가격경쟁력’

부문의 4개 세부지표(▲호텔, ▲구매력 평가, ▲취발유, ▲단기 임대 숙소 가격경쟁력)는 모두 50위권 이하에 머물렀다. ▲정부 예산 중 관광 지출 비중(76위), ▲항공 서비스 협정 수(62위), ▲환대 평판 지수(65위) 등에서도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는 관광정책 예산 확보, 항공 자유화 확대, 친절·환대 서비스 확충 등 관광정책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분야별·부문별 순위 상위권이 종합 순위 상위권과 일치하지는 않아

5개 분야별 1위를 차지한 국가를 살펴보면, 스위스(종합 순위 9위)가 ‘환경 조성’ 분야 및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관광정책 및 기반 조성’ 분야는 인도네시아(종합 순위 23위), ‘관광 자원’ 분야는 중국(종합 순위 8위), ‘관광의 지속 가능성’ 분야는 칠레(종합 순위 35위)가 각각 1위에 올랐다.

5개 분야별, 17개 부문별, 102개 지표별 순위를 세부 분석한 결과, 고소득 국가*는 기업 환경, 안전 및 보안, 정보통신기술, 교통 시설 등 관광 기반 여건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기타 국가는 관광 자원과 가격경쟁력 등 관광객 방문을 직접 유인하는 요소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1인당 소득 13,935달러 초과 국가(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2026 보고서 자체 기준)

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이번에 발표된 관광발전지수의 종합 순위뿐 아니라 세부 분야와 부문별 결과를 통해 ‘케이-관광’의 장단점을 상세히 분석하고,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개선이 필요한 지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5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전체 순위

따로 붙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5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정책리포트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정현 (044-203-2811)
		담당자	서기관	최혜연 (044-203-2812)
담당 부서 <통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책임자	실장	안희자 (02-2669-9888)
		담당자	연구원	이성빈 (02-2669-8416)

붙임

2025 세계경제포럼 관광발전지수 전체 순위

순위	(변동)		국가	순위	(변동)		국가	순위	(변동)		국가
	'19	'23			'19	'23			'19	'23	
1	(-3)	(-2)	일본	38	(-1)	(-10)	태국	75	(-13)	(-10)	라오스
2	(+1)	(-)	미국	39	(+1)	(-3)	불가리아	76	(-7)	(+4)	우즈베키스탄
3	(+1)	(+2)	스페인	40	(-8)	(-1)	조지아	77	(+1)	(-2)	케냐
4	(-3)	(-2)	호주	41	(+7)	(+6)	멕시코	78	(-2)	(-4)	자메이카
5	(-1)	(+1)	프랑스	42	(+1)	(+6)	헝가리	79	(+4)	(-1)	몽골
6	(+1)	(+1)	독일	43	(+1)	(-)	루마니아	80	(+6)	(+6)	에라도르
7	(+4)	(-)	영국	44	(+7)	(+10)	에스토니아	81	(+3)	(-)	북마케도니아
8	(-2)	(-)	중국	45	(+5)	(+1)	슬로베니아	82	(+5)	(+4)	튀니지
9	(-)	(-1)	스위스	46	(+3)	(+1)	크로아티아	83	(-2)	(-1)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10	(-3)	(+1)	이탈리아	47	(-3)	(-10)	카타르	84	(+5)	(+9)	보츠와나
11	(-1)	(-1)	포르투갈	48	(+3)	(-2)	아르헨티나	85	(-1)	(-2)	파라과이
12	(-2)	(-1)	대한민국	49	(-)	(+3)	리투아니아	86	(-7)	(-8)	네팔
13	(+5)	(-1)	싱가포르	50	(+6)	(+3)	이스라엘	87	(-5)	(-2)	엘살바도르
14	(+3)	(+3)	캐나다	51	(-4)	(+2)	코스타리카	88	(+6)	(+2)	쿠웨이트
15	(-)	(-)	오스트리아	52	(-10)	(-7)	베트남	89	(-5)	(-4)	알제리
16	(-1)	(-)	덴마크	53	(-20)	(-10)	알바니아	90	(+6)	(+7)	나미비아
17	(+1)	(-)	네덜란드	54	(-4)	(+3)	콜롬비아	91	(+2)	(+1)	르완다
18	(-1)	(-)	스웨덴	55	(-2)	(+2)	바레인	92	(+2)	(+1)	볼리비아
19	(+1)	(-1)	핀란드	56	(+5)	(+4)	카자흐스탄	93	(-5)	(-2)	키르기스스탄
20	(-)	(-3)	아일랜드	57	(-12)	(-8)	필리핀	94	(+7)	(+2)	과테말라
21	(-4)	(-)	그리스	58	(+6)	(+3)	아제르바이잔	95	(+4)	(+7)	파키스탄
22	(-4)	(+3)	아랍에미리트	59	(+6)	(+3)	모리셔스	96	(+1)	(-1)	잠비아
23	(-12)	(+1)	인도네시아	60	(+6)	(+6)	슬로바키아	97	(+1)	(+1)	가나
24	(+2)	(-)	벨기에	61	(-)	(+3)	남아프리카공화국	98	(-2)	(-)	방글라데시
25	(+4)	(-3)	뉴질랜드	62	(+2)	(-2)	오만	99	(-3)	(-)	세네갈
26	(-2)	(-13)	말레이시아	63	(-7)	(+2)	이집트	100	(+1)	(-)	니카라과
27	(+3)	(+2)	룩셈부르크	64	(-2)	(+4)	페루	101	(-)	(-)	짐바브웨
28	(-4)	(+2)	폴란드	65	(+6)	(+3)	파나마	102	(-4)	(-1)	코트디부아르
29	(-17)	(-3)	사우디아라비아	66	(+3)	(-)	도미니카공화국	103	(+6)	(+1)	온두라스
30	(-)	(-1)	키프로스	67	(+11)	(-1)	라트비아	104	(-1)	(-3)	나이지리아
31	(+4)	(-9)	인도	68	(-)	(+1)	세르비아	105	(+2)	(-)	앙골라
32	(+1)	(+5)	브라질	69	(+4)	(-4)	스리랑카	106	(+2)	(+2)	베냉
33	(+4)	(+3)	몰타	70	(-1)	(-7)	모로코	107	(-)	(-1)	말라위
34	(+11)	(+5)	아이슬란드	71	(+4)	(+1)	우루과이	108	(-)	(+2)	카메룬
35	(-1)	(-3)	칠레	72	(+8)	(+1)	아르메니아	109	(-)	(-)	시에라리온
36	(-11)	(-1)	튀르키예	73	(+1)	(+4)	요르단	110	(-)	(-)	말리
37	(+4)	(+4)	체코	74	(-7)	(-2)	탄자니아				

주: 변동 = 2025년 순위 - 해당 연도 순위(- 순위 상승, + 순위 하락, 0 동일). 2019-2023년은 WEF 2026년판 재산을 기준(110개국)
 자료: WEF(2026.9.), Travel & Tourism Development Index 2026 edition data.